

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 소개 (Introduction of Off-site Risk Assessment(ORA) and Risk Management Plan(RMP) system)

마병철<sup>†</sup>

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

(anjeon@korea.kr<sup>†</sup>)

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'15년부터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.

장외영향평가(off-site risk assessment(ORA))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해당시설의 기본평가 정보, 장외평가(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), 타 법령과의 관계 정보를 미리 작성하여 유해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이며 위해관리계획(risk management plan(RMP)) 제도는 일정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(화재·폭발, 반응성 및 급성독성이 강한 물질)을 취급하는 자가 해당시설 및 공정의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데 그 목적이 있다.

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작성지원 도구 등을 개발·보급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.